

2001년 현충일 주말 특별집회 표어

첫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셨다.

우리는 주님의 명에—하나님의 뜻—를 베고
그분의 모형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가져
은밀한 중에 우리의 천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히 누리기를 체험하며
그분으로부터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2001년 현충일 주말 특별 집회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사람 생활—기도의 사람

메시지 1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성경: 요10:30, 8:29, 16:32하, 14:30, 17:1, 마14:23

I.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이상이 있지만 각 형제 자매마다 여전히 새로운 부흥을 위해 주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다—**합3:2상, 호6:2**

- A.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사람들로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을 변혁시킨다—**갈2:20**.
- B.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의 생활이다—**요6:57, 14:9-10**.
- C. 주 예수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시며 우리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이다—**롬8:29**
 - 1.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간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인생을 사시어 인간 미덕들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셨다—**눅1:35, 10:25-37**.
 -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므로 우리는 인성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골3:4**.
 - 3. 하나님-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마16:24, 갈2:20, 빌1:21상**.
- D.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연합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사람의 생활, 즉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전6:17**.
- E. 결국 하나님-사람들이 이기는 자들, 즉 예루살렘 속에 있는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부흥—역사상 없었던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이 시대를 끝낼 것이다—**계14:1, 11:15**.

II. 첫 번째 하나님-사람 주 예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눅5:16**

- A. 기도의 사람이신 첫 번째 하나님-사람을 묘사할 때에 우리는 **신성한**과 **비밀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성한**은 하나님의 방면이고 **비밀한**은 사람의 방면이다
 -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분의 생활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신성하고도 비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비밀하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딤후3:16**.
 - 2. 주님의 비밀한 인간 생명은 신성한 영역이었고, 이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요3:13, 3**.
- B.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역사(歷史)의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기도였다—**요17**
 -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기도들은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있었다.
 - 2. 주 예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도 비밀한 방식으로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마14:23**.
 - 3. 그분의 기도는 신성했지만 인간 생활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인간 생활을 비밀하게 했다—**막1:35, 눅5:16, 6:12**.
 - 4.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분의 비밀한 인간 생활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이었다—**요17**
 - a.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신성한 사실이고, 주 예수 안에서 신성한 사실들은 인생 안에 살아내어져 그분의 인생을 비밀하게 만들었다.
 - b. 주 예수는 하나님-사람이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다 그분의 인생에서 비밀하게 성취된 신성한 사실들이었다—**5:19**.

- C. 주 예수에게서 우리는 복음서에 계시된 기도의 사람의 순수한 본을 본다
1.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셨다—요10:30.
 2.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는 그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신 사람이셨다—행10:38하, 요8:29, 16:32하.
 3.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 아래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벧전2:23하, 눅23:46.
 4.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는 세상 임금인 사탄이 그 안에서 아무 것—어느 것에 있어서도 아무 입지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사탄은 그분 안에서 아무 입지도 갖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순복이 사탄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요14:30.

III.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게 하는 것이다—롬8:26-27, 약5:17

- A.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호호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에게 얻어진 바 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쉬고 들이마셔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를 접촉하고 서로를 얻는 것이다—살전5:17.
- B.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한다—롬8:26-27, 약5:17, 엡1:17-23, 3:14-21.
- C.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즉 하나님-사람으로서 기도하게 한다—유20, 엡6:18.

IV.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며 하나님-사람들인 우리에게 신성하고도 비밀한 사람들로 사는 것을 가르친다—마28:19, 고후13:13, 엡4:1-6

- A. 우리는 범속한 데서 분별되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성별되었고 분별되었으며 이제 완결된 영의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있다—요17:17, 19, 히2:11, 살전5:23.
- B. 우리의 삶은 신성하면서도 인간적—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도 비밀해야 한다—요14:16-20.
- C. 각 믿는이는 인간이지만 신성하게 사는 사람인 신성하고도 비밀한 사람이어야 한다—갈2:20, 고후10:1.
- D.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신성하다는 것의 의미이다—고전10:31, 골3:17.
- E. 진정한 기도도 합당한 기도는 단지 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신성한 것이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삶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롬8:26-27, 유20.
- F. 모든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계산될 수 있는 기도는 신성한 사실들, 즉 비밀한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신성한 어떤 것이다—요14:13-14, 16:23-24.